

대한적십자사, 완도 군외면적십자봉사회 결성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흥석)는 지난 7일 완도군 군외면에서 군외면적십자봉사회 신규결성식을 가졌다. 군외면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소속 305번째 봉사회다. 완도군 군외면 거주인 28명의 신입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아동·노인복지, 봉사활동, 구호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 취약계층에 돼지고기 2778박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회장 오재곤)가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 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노진영)에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돼지고기 2778박스(박스 당 2kg·5000만원 상당)로, 전남지역 푸드뱅크 및 마켓 27개소를 통해 전남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축산농협, 전국 농협 종합업적평가 3년 연속 1위



광주축산농협(조합장 김호상·앞줄 왼쪽 6번째)이 '2019년 전국 농협 종합업적평가'에서 3년 연속 1위에 선정돼 지난 7일 김석기(왼쪽 5번째) 농협 전남본부장으로부터 상패를 받았다.

남부대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아동 성장 지원 협약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단장 장은미)은 지난 7일 교내 산학관에서 특목 브레인 심리발달연구소(대표 박병훈)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김환국(㈜금광공사 대표)·김순씨 장남 형남군, 고정주(주나연산업 대표)·박화자씨 차녀 주리양=11일(토) 오후 5시30분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웨딩홀.
- ▲박형래(전 대한석탄공사 국장)·이귀례씨 장남 노익군, 배승수(광주영어방송 사장)·고은숙씨 장녀 윤경양=11일(토) 오후 2시 서구 광천동 웨딩그림 위더스광주 5층 엘린홀.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급료,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지원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

“여성들의 경제 자립 돕는 든든한 친구죠”

개원 27주년 맞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김신희 관장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상담·직업훈련 교육·동행면접 서비스
매년 200여명에 구직 기술 제공...지난해 취업률 79% 기록

“광주 고용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늘 기회가 옵니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지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광주에는 결혼, 육아 등 이유로 경력이 단절돼 버린 여성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주는 곳이 있다.
1993년 개원해 올해로 27주년을 맞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김신희·이하 여성인력센터)다.
여성인력센터는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 YWCA가 운영하는 종합취업지원서비스기관이다. 김신희(여·55) 관장은 “전문화·기능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여성 취업,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여성인력센터는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열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상담, 취업준비교육, 직업훈련교육, 새일여성인턴제, 동행면접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행조무사 현장실무과정, 단계급식 조리마스터과정 등 국비 여성직업훈련과정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새일센터 사업으로 해마다 200여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이미지메이킹, 직업선호도검사, 이력서작성법 등 구직 기술을 제공했어요. 지난해 국비 여성직업훈련과정으로 79%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김 관장에 따르면 해마다 5000여명에 달하는 여성이 여성인력센터로부터 상담, 취업연계 등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교육과정을 받은 이틀만 1200여명에 이른다. 김 관장은 “다양한 직종이 개발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면서 해가 갈수록 수강생이 늘고 있다”며 “보육, 간병, 요양 등 돌봄분야 일자리 수요가 늘면서 취업문이 더 활짝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센터장으로 취임한 김 관장에게도 여성 취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저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옛날에는 임신, 출산, 육아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지금보다 많았고, 저도 그 아픔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 취업에 성공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김 관장에 따르면 아직 광주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구직자와 업체가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달라 취업지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은 고학력자가 많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찾아요. 고용현장이 이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고, 업체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인력센터는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와 직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대처하고 있다. 27년동안 이어온 ‘도배전문가과정’ 등 국가자격증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버보드게임 지도사, 웰다잉(Well-dying)지도사 등 교육을 신설해 제공한다. 이밖에 창업 컨설팅, 노무지식특강 등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일하는 아빠들의 육아토크” 간담회 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지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지요. 앞으로도 전 직원과 함께 취업도전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주먹밥 정신으로 코로나 이겨내요”

문화재단 직원 등 20여명 100인분 만들어 자원봉사자에 전달

광주문화재단은 8일 전문문화관에서 광주시 무형문화재 남도의례음식장과 재단 직원들이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주주먹밥’ 100인분을 만들어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사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번 주먹밥 만들기는 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 이애섭·민경숙 보유자와 이은경 이수자, 문화재단 김윤기 대표이사, 이모숙 사무처장, 재단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비닐장갑, 헤어캡, 페이스커버 등을

착용하고 음식 만들기를 진행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문화관 너털마당 여러 곳에 파라솔을 설치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광주의 7대 대표음식 중 하나인 주먹밥은 ‘광주 공동체 정신’을 담은 상징적인 음식이다. 이번 주먹밥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취나물, 잔말치, 묵은지 등의 식재료를 활용해 만들었다.
이애섭·민경숙 보유자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애쓰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여섯방부터 정성 들여 재료를 준비했다”며



“사랑의 주먹밥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기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무형문화

재 선생님들이 좋은 뜻을 위해 흔쾌히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한국신문윤리위 이사회
이상택 선임 이사장 선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 7일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을 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이사로, 권중원 헤럴드경제 사장과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고광현 서울신문 사장과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이천중 세계일보 사회부장 등 2020-2021년도 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정요섭·목포 박은주 ‘1분기 으뜸 광주세관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1분기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정요섭, 목포세관 박은주 관세행정관을 각각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요섭 행정관은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체로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인도세관에 직접 서한문을 보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해 통관시키는 등 중소기업 해외통관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은주 행정관은 관세청의 납기연장 승인 등을 이끌어 체납처분 위기에 놓인 업체의 기업회생을 돕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본부세관은 매분기마다 기업지원 등 4개 분야에서 관세행정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으뜸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세관 위상 제고에 공이 큰 직원이 으뜸세관인으로 선정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마스크 쓴 K리그 엠블럼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위한 K리그 엠블럼이 제작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엠블럼을 제작해 지난 7일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K리그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